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④	③	②	①	④	②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③	④	③	④	④	③	④	②

해설

- 고구려의 고국천왕은 재상 을파소의 건의로 춘대추납의 빈민 구제책인 진대법을 실시하였다(2세기).
- ㄱ. 고이왕(3세기) → ㄴ. 근초고왕(4세기 중반) → ㄷ. 침류왕(4세기 후반) → ㄹ. 무령왕(6세기)
- 제시문은 금관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의 탄생 설화이다.
④ 금관가야가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위의 소국보다 우수한 철기문화와 벼농사의 발달 때문이었다. 가야는 철을 주변국으로 수출하기도 하였다.
<오답 확인>
① ② 백제, ③ 신라에 대한 설명이다.
- 발해는 대당 무역의 비중이 가장 컸다.
- 원측은 7세기 신라의 왕족 출신 승려이다.
- 고려 시대의 지방군은 국경 지방에 위치한 양계에 주둔하는 주진군과 5도의 일반 군현에 주둔하는 주현군으로 이루어졌다.
- 제시문은 최승로의 <시무28조>이다. 고려 성종은 최승로, 김심언 등 신라 6두품 계열의 유학자들을 등용하여 유교정치 이념에 따른 국정 운영을 하였다.
④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치스러운 불교 행사를 제한하였으며,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하고 집을 절로 삼는 것을 금지하였다.
<오답 확인>
① 태조, ② 광종, ③ 예종에 대한 설명이다.
- 재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때 만든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2차 침입 때 불타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만든 것이다.
- 밀줄 친 '그'는 12세기 후반에 집권하였던 최충헌이다. 무신집권기의 시대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 최충의 9재 학당을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던 시기는 11세기 중엽이다.
- 태종 때 사섬서를 설치하여 공양왕 때 발행되었던 지폐인 저화를 다시 발행하였다.
<오답 확인>
② 숙종, ③ 고종, ④ 세종에 대한 설명이다.
- 제시문은 방납의 폐단에 대한 글이며,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광해군 때 처음으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③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수요품을 구해 납품한 어용상인은 공인이다.
- ㄱ은 정약용의 여권론, ㄴ은 이익의 한전론이다.
- ㄷ. 향약구급방(13세기) → ㄷ. 의방유취(15세기) → ㄱ. 동의보감(17세기 초) → ㄴ. 마과회통(18세기 말)
- 대동여지도는 1861년 철종 때 김정호가 16만분의 1 축척을 사용하여 22첩으로 그린 절첩식 지도이며, 목판으로 대량 인쇄되어 지도의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 1860년대의 위정척사운동은 이항로, 기정진 등이 주도하였으며, 이후 최익현, 홍계학, 유인석 등에게 계승되었다.
③ 영남 만민소는 1881년 이만손 등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위정척사운동이다.
- (가)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아관파천 직후 국내 최대 금광인 운산 금광 채굴권을 침탈하여, 이후 40년간 순금 80톤을 채굴했다.
<오답 확인>
① 삼국간섭은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개입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요동반도를 청에 돌려주게 한 사건이다.
② 러시아, ③ 영국에 대한 설명이다.
- 제시문은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직후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일신협약(1907.7.24, 정미7조약)이다.

- ④ 1907년 6월, 고종은 이상설·이준·이위종 등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 회의에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밝히려 하였다.
- ㄴ. 3·1 운동(1919) → ㄱ. 물산장려운동(1923) → ㄷ. 6·10 만세운동(1926) → ㄷ. 광주학생항일운동(1929)
- 제시문은 1960년 4·19 혁명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발표한 4월 혁명 선언문이다.
④ 진보당은 1956년에 조봉암을 필두로 조직되었다.
<오답 확인>
③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는 1960년 9월에 조직되었다.
- 제시문은 1972년 12월에 제정된 유신헌법의 내용이다.
② 1976년 3월 1일 윤보선, 김대중 등 재야인사들이 명동 성당에서 긴급 조치 철폐, 박정희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오답 확인>
① 1964년, ③ 1948년.
④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정권에서 추진한 정책이다.

난이도 매우어려웠다. 다소어려웠다. 평이했다.
 다소쉬웠다. 매우쉬웠다.

총평

이번 서울시 한국사 시험은 국가직 시험만큼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시대별 주요 특징, 사건의 흐름과 같이 평소 수험 강의에서 강조되었던 내용을 잘 정리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문제 유형을 분석하면 번호 순서대로 전근대사에서 14문제, 근현대사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고, 지역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평이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릴만한 문제는 조선 후기의 지도 문제인데, 대동여지도가 모눈을 그려 축척을 표시한 지도라고 꼼꼼하게 학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4번이 옳은 설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는 선택지를 세심하게 읽지 않아 백제의 원측, 양계의 주현군처럼 옳지 않은 설명을 놓쳐 틀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평이했던 시험인 만큼 시험 당일 실수 여부가 당락을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